



확 달라진

오륙도해파랑길 안내소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총 사업비 11억8300만원을 투입해 기존 관광안내소 리모델링과 신규 건물들

증축했다. 새로 증축된 건물은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121.43m)은 관광객을 위한 카페가 운영된다. 한편 리모델링을 마친 기존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건물 1층에는 오륙도홍보관과 관광

증축·리모델링 사업완료

카페·5G체험관 등 예정



일부와 2층에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7월 31일 남구청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륙도 해파랑길 안내소 준공식이 열렸다.

백운포 체육공원·평화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 무료 개장

여름방학을 맞아 남구가 백운포 국민체육센터와 평화공원에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을 무료로 운영한다.

남구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백운포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야외물놀이장을 무료 개장한다. 폭 10m 워터풀장 2개와 수상 슬라이드 1개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매시간 45분간 이용·15분 휴장한다. 12시~13시까지는 안전점검 및 휴식시간을 갖는다.

이용 대상은 4~13세 이하 어린이로 성인은 이용할 수 없다. 수영복과 수모,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백운포체육공원 마사구장에 주차하면 되

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부대 시설로는 그늘막과 탈의실 등이 있으며 샤워시설은 없고 기상악화 등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8월 1일 오후 2시 개장식에는 남구국민체육센터 댄스팀 공연과 물총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평화공원 중앙광장에 설치되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8월 5일~9월 1일까지 운영되며 워터풀장 2개, 유아풀장 1개, 수상슬라이드 1개가 설치된다.

백운포 물놀이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초등 6학년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백운포 어린이 물놀이장.

일 잘하는 남구... 손만 대면 상! 상! 상! 🏆

남구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일자리·경제 분야서 눈부신 쾌거

청년일자리 창출·(주)부산남구미래 호평

2019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남구가 최우수상(일자리 및 경제 분야)을 받았다.

남구가 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7월 24~25일 이틀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지자체 간 상호교류, 학습, 소통을 목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경진대회는 △일자리 및 경제분야 △도시재생분야 △에너지분권분야 △초고령화 대응분야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시민참여·마을자치분야 △소식지·방송분야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국 147개 지자체에서 343개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176개의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발표를 통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 남구는 국내 대표 청년일자리도시 명성에 걸맞게 '남구의 미래, 청년일자리에서 찾아요~!'라는 주제로 일자리 및 경제분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얻었다.

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주)부산남구미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산학관 청년협업벨트 구축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 성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남구는 민선7기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2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체계화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민선7기 출범 1주년 행사 남구는 지난 7월 1일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국민 행복 약속 선도식'을 가졌다. 직원들은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 건언어 아이디어를 적은 노란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잇단 최우수

행정안전부·부산시로부터 1억1,100만원 인센티브 획득

남구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눈부신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2011년부터 9년간 연속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업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6,100만원, 부산시로부터 5,000만원 등 모두 1억1,1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본 제도는 재정집행, 일자리사업 및 예산규모, 국고보조 SOC사업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중 집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재정집행 상황 관리를 통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실이라는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남구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의 균형집행을 위한 노력할 방침이다. ☎607-4022

지 면 안 내

남구 12경-오륙도해녀	4면
동남권 관문공항 팩트체크	5면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 선정

1억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남구는 지난 7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원규모 등이 유사한 동종단체별로 구분하여 상반기 추정 시기, 추정 규모, 일자리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남구에 나타난 마징가Z	7면
지역주택조합 알고 가입을	10면
'개통령'이 말하는 개의 진실	11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진정한 의미 되묻는

참전용사 단편소설 최초 공개

〈빈센트 커트니〉

‘한국과 캐나다를 찬송하며’

남구·석포초등이 소설 배경



커트니 씨의 한국인 부인 정막레(마레 커트니)씨의 이름에서 가져 왔다.

한때 캐나다 보훈처에서 소설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캐

나다 초등학교 학습 교재로 활용하려 했으나 커트니 씨는 "소설 내용은 고칠 수 없다"며 거절해 책자로 발간되지 못했다.

최근 전립선암이 재발돼 암투병 중인 커트니 씨는 16년 동안 자신의 PC에 잠들어 있던 소설 초본을 우연히 찾아내 부산남구신문에 보내 왔다. 분지는 20년 이상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인 그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그의 소설을 번역해 최초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자가 캐나다 등 영미권 독자를 배려해 많은 부분을 활어한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풍습 부문은 지면 사정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등 소설의 전체 분량을 싣지는 못했다.

빈센트 커트니 단편소설 '한국과 캐나다를 찬송하며' 6면 게재

웃음과 마술로 무더위 날리세요

8월 28일 환경공단 체육공원서 제7회 코미디 오픈콘서트 개최

오는 8월 28일(수) 남구에서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픈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오후 7~8시 한시간 동안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상부 체육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오픈콘서트는 국내외 유명 코미디언들이 대거 출연해 코미디 공연

과 함께 마술, 서커스, 저글링 등 화려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는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매년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코미디 페스티벌로 8월 23일~9월 1일 열흘간 해운대 영화의 전당과 센텀시티 공연장에서 열린다.

폭염 대비 그늘막 추가 설치 완료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남구는 최근 문현금당지 등 관내 14곳에 접이식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 대전사거리 등 6곳에 추가 설치 예정이다.

지난해 8월과 올 상반기에 설치한 그늘막까지 합하면 총 24개 그늘막이 남구 17

개 전 등에 골고루 운영된다. 22개는 파라솔 형태이고 나머지 2개는 가운데 따라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이다. 그늘막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돼 무더위와 폭염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게 잠시나마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